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### 금리 인상 효과 및 전망

- 중국 인민은행이 4월 6일부터 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출금리를 0.25%p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가 연 3.25%, 대출금리가 연 6.31%로 인상됨.
  -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1월과 2월 모두 4.9%를 기록했고 3월에는 5%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원유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여 물가상승 압력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평가됨.
  - 중국은 2011년 들어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통화긴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됨.
    -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각각 한 번씩 세 번의 지급준비율 인상을 단행하여 유동성 흡수를 통한 물가 안정화를 달성하고자 하였으며, 2월 0.25%p 금리 인상 후 두 달여 만인 이번 4월에 또 한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함.
- 지급준비율 및 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긴축정책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,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도 존재하여 통화긴축정책이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  - 중국의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된 바 있어 시장에 영향력이 상당 부분 선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심화될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 추가적 금리 인상 가능성도 존재함.
    - 연이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금리 수준이 경기회복을 저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지급준비율 및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.
  -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낙관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나 통화긴축정책으로 경제성장 속도는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됨.
  - 한편, 당분간 소비자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나 하반기 들어 금리 인상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

(Financial Times, 4/5)